

## 의상과 가방의 디자인 관련성과 코디네이션

이원정<sup>†</sup> · 이경희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 Design Relevance and Coordination of Clothing and Bags

Won Jung Lee<sup>†</sup> · Kyoung Hee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6. 11. 23.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 planning clothing and bag design and VMD. For this purpose, the prêt-à-porter fashion collection is divided into the following sectors: brands, years, and seasons, focusing on the design ele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t is these three ways that determine the relevance of clothing and bag design planning. first, we have analyzed design properties analogously with one design element, like Louis Vuitton. Second, we considered design properties analogously with two design elements, like Chanel, Gucci, Prada. Third, we examined design properties analogously with three design elements, like Christian dior, Fendi, Etro. 2. The comparison of clothing and bag design properties year by year shows that they were mainly designed with an analogous aspect with pattern and decoration. 3. Clothing does well to match a bag between analogous design properties of design elements to express similarity coordination and between contrast design properties of design elements to express plus one coordination or crossover coordination. 4. The aspect of coordination of clothing and bags year by year is different period. This is because of clothing and bag design's change according fashion trend. 5. S/S coordination of clothing and bags is effective to present plus one coordination or crossover coordination. And F/W coordination of clothing and bags is effective to present similarity in coordination.

**Key words:** Bag, Clothing, Design, Coordination; 가방, 의상, 디자인, 코디네이션

### I. 서 론

현대 패션에서 완벽한 스타일링을 추구하는 토털 코디네이션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같은 컨셉을 가진 브랜드 내에서의 윈스톱 쇼핑 경향을 부추기게 되었고 이에 의상 전문 브랜드에서도 상품 라인을 확장하여 액세서리 라인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로 출발한 브랜드도 의상과 함께 토털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액세서리 아이템 중 특히 가방

은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기능적인 역할을 넘어 독창적인 개성 창출의 도구이면서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의상과 가방 디자인은 함께 전반적인 컨셉과 잘 융합하며 감각적인 코디네이션을 선보임으로서 패션 마니아로부터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토털로 전개되는 국내 브랜드에서는 의상과 비교하여 가방의 디자인 개발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의상과 가방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의상과 가방을 별개로 다루는 연구들이 대부분 이루어져 왔으며 의상과 액세서리를 함께 살펴본 연구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chopin0903@hanmail.net

는(박성숙, 2003; 배인순, 2003) 전반적인 패션 연출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의상과 특정 액세서리 아이템간의 세부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패션 연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효과적인 연출을 위해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 가방을 중심으로 의상과의 디자인 관련성과 코디네이션 양상을 디자인 요소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토털 지향 국내 브랜드에서 디자인 기획 시 가방과 의상 디자인을 유사한 양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디자인 요소를 활용한 효과적인 코디네이션 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해외 유명 브랜드의 의상과 가방

해외 유명 브랜드는 대부분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며 장인의 영혼이 깃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시대를 이어 내려오는 장인의 섬세한 솜씨와 정신은 모조품 풍조가 만연한 현대 산업사회에서도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급변하는 세계 패션 트렌드 속에서도 브랜드를 지탱시켜주는 든든한 근간이 되고 있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해외 유명 브랜드 의상의 미적 본질과 구조에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양유미(2002)는 샤넬 스타일을 기능주의와 실용주의 중심의 페미니즘 성향으로 보았다. 크리스찬 디올의 뉴욕에 대해서 광택기(2001)는 신개념의 여성다운 이미지의 능동적인 여성성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김정은, 정홍숙(2000)은 역동적이고 삶의 생명력이 넘치는 유기적인 모더니즘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과거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각각의 시대적 상황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디자이너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디자이너 정신이 어떻게 현대 패션에 스며들고 있는지를 성찰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들은 이러한 과거로부터 이어진 미의식을 바탕으로 브랜드만의 독창적인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현대적 감각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임으로서 세계 패션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에 고유한 브랜드의 디자인 특성과 시대에 따른 디자인 변천 등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사

넬의 디자인 특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최진형(2006)은 저지 소재와 완벽한 재단, 불필요한 장식의 배제 등을 통해 자유롭고 편안한 디자인을 표현하였다고 하였고, 이미숙(1999)은 시대를 초월한 클래식한 의상뿐 아니라 이브닝웨어를 통해 여성스럽고 로맨틱함을 표현하였고, 직물, 재단, 색상, 디테일, 액세서리 등을 끊임없이 변화시켰다고 하였다. 크리스찬 디올의 오프꾸뛰르 디자인 특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공미선, 채금석(2003)은 엘레강스를 기본 컨셉으로 유지하면서도 포스트모더니즘의 아방가르드한 표현기법을 표현함으로써 현대 오프꾸뛰르 디자인 모드를 창조적으로 이끌었다고 하였다. 해외 유명 브랜드의 역사를 살펴보면 의상뿐 아니라 가죽 피혁 제품 등의 액세서리 라인으로 출발한 브랜드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브랜드들은 지속적으로 액세서리 라인을 발전시켰고 이는 현재의 액세서리 디자인력의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 또한 액세서리 라인은 다른 라인과 비교해 볼 때 브랜드를 드러내기 용이하여 착용자의 경제적 수준과 고급스러운 취향을 한눈에 표현하는 상징적인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액세서리 아이템 중에서도 특히 가방은 패션 복제품의 구입 품목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이승희, 신초영, 2002)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방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는 디자인을 다루는 연구가 부족하며 대부분 마케팅 분야의 선호도와 구매행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가방뿐 아니라 의상과 구두 등 다른 아이템과 연계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다. 이승희, 신초영(2002)는 가방을 포함한 패션 복제품에 대한 구매실태조사를 통해 과시적 물질주의 성향 또는 쾌락적 소비가치 성향이 높으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복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였고, 이연심(2002)은 가방을 포함한 명품 복제품 구매자의 소비자 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내 패션 업체의 상품 기획과 디자인에서 명품 디자인의 카피 관행을 버리고 특별한 디자인으로 선도 집단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의상과 같이 해외 유명 브랜드의 의상과 가방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별개로 이루어져왔으며 특히 가방에 관한 디자인 연구가 부족하였다. 또한 마케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도 디자인의 중요성을 다수 언급 하였지만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가방이 의상의 스타일을 완

성하는 중요한 아이템이라는 점에서 의상과 가방의 디자인을 함께 살펴 구체적인 마케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2. 패션 코디네이션

현대 패션이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 다채롭고 복합적인 미적 감성을 모두 포용하게 되면서 세련되고 개성 넘치는 패션의 연출은 오늘날 개인의 경쟁력이 되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의복 뿐 아니라 핸드백, 모자, 구두 등의 액세서리와 헤어, 메이크업 등을 통해 저마다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패션 코디네이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의상 못지않게 민감한 트렌드를 갖는 액세서리와 헤어, 메이크업 등을 중심으로 코디네이션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배인순(2003)은 토털 코디네이션의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토털 코디네이션 경향을 연도별로 분석하고 이를 시대적 배경과 함께 고찰하여 앞으로 전개될 코디네이션의 변천을 예측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박성숙(2003)은 패션 코디네이션의 연출사례를 잘 표현하고 있는 패션 잡지의 화보분석을 통해 패션 코디네이션은 사회적 유행과 개인의 체형, 헤어&메이크업, 선호도, 그리고 TPO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을 배경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코디네이션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에는 의미가 있지만 과거에 대한 고찰에 그쳐 아쉬움이 있었다. 코디네이션은 패션을 완성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이며 따라서 실용적인 활용도가 매우 중요하게 요구된다. 이는 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특성이 반영되어 적절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을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데 허갑섭, 이병화(1999)는 직장여성의 패션 연출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패션 연출형태를 자신감 연출, 액세서리 연출, 유행 연출, 개성 연출의 4가지 요인으로 분석하였고 직업에 따라 패션 연출의 관심도나 자신감이 다르다고 하였다. 또한 코디네이션은 디자이너의 독특한 특성으로 부각되었다. 진경옥(2005)은 존 갈리아노가 작품 속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통해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대담한 장식, 다채로운 색채, 실험적인 착장방식 등을 통해 개성적이고 혁명적인 코디네이션을 표현했다고 하였다. 이승림, 송명건(2000)은 샤넬의 코디네이션을 튜블러 실루엣의 의상, 모자, 진주 목걸이, 카멜리아, 향수 등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샤넬 스

타일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미의식과 일치하며 20세기 여성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스타일의 표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패션 코디네이션에 대한 연구는 그 관심과 더불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공통적으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또한 패션 코디네이션이 부분의 조합으로 완성된다는 점에서 좀 더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액세서리 아이템 중 특히 가방은 수납의 기능과 더불어 패션 연출에서 빠질 수 없는 아이젱이다. 따라서 가방과 의상의 코디네이션 양상을 살펴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자료수집 및 선정

연구의 대상이 되는 브랜드의 선정은 토털로 전개되는 해외 브랜드 중 '03 브랜드 연감'의 국내 백화점 매장수와 'Brand Top 10'의 브랜드 인지도 조사, 국제 명품 거래 사이트 1위 'feelway.co.kr'의 가방 거래량을 근거로 한 가방 선호도 조사(2005년 7월 15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개의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브랜드는 샤넬, 루이비통, 구찌, 크리스찬 디올, 프라다, 펜디, 에트로이다. 자료수집은 2001년 S/S~2005년 F/W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에서 발표된 사진 중 가방을 착장한 자료를 firstview.com과 style.com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사진선정과정에서 디자인이 불명확하거나 반복되는 사진을 제외하고 디자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의상 1055개와 가방 773개의 사진자료를 선정하였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코디네이션을 중심으로 쌍을 이루는 의상과 가방의 사진자료 1008쌍을 구성하였다.

### 2. 자료분석

의상과 가방의 디자인 관련성과 코디네이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의상과 가방의 디자인 특성을 형태와 색채, 재질, 무늬, 장식의 디자인 요소로 파악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상의 형태는 이경희 외(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실루엣을 중심으로 피티

드와 슬림의 좁은 사각형, H와 스트레이트의 사각형, 박시의 넓은 사각형, A라인과 트라페즈, 트럼펫의 삼각형, V라인과 Y라인, T라인, 와인글라스의 역삼각형, 프린세스, 피트애플어, 아우어글라스, 벨의 모래시계형으로 나뉘었고 부정형, 혼합형 등은 기타형으로 구분하였다. 가방의 형태에서 단면 형태는 바디 실루엣을 중심으로 사각형, 사다리꼴, 반원형, 원형, 육각형, 기타로 분석하였고, 바디 구성은 가방의 프론트, 백, 보텀, 사이드의 구성 시 구분 여부와 프론트와 백의 상단 구성이 맞붙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정사면체, 누운 삼각기둥, 누운 반원기둥, 누운 원기둥, 세운 원기둥, 변형 원뿔, 얇은 정사면체의 7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바디 사이즈는 가방의 단면 사이즈를 작은, 중간 큰 사이즈의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핸들 길이는 착장 형태와 착장 시 바디 위치를 고려하여 짧은, 중간, 긴, 핸들 없음의 4가지로 분석하였다. 색채는 주스현, 이경희(2002)의 연구를 참고하여 크게 단색과 배색으로 나누고 이를 세분화하여 유채색(은은한 톤, 밝은 톤, 선명한 톤, 어두운톤), 무채색, 유사 배색, 대조 배색, 악센트 배색, 그라데이션 배색으로 분석하였다. 재질은 이경희 외(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유연성과 표면의 부드러움 거친 정도, 두께감, 투시 정도와 빛에 대한 반사 정도에 따라 딱딱한, 부드러운, 비치는, 반짝이는, 복합적인으로 분석하였다. 무늬는 Davis(1990)의 연구를 참고하여 모티브의 원천과 표현 방법에 따라 자연-사실표현, 자연-양식표현, 인공, 추상, 기하학, 상징, 복합, 무지의 8가지로 분석하였다. 장식은 박선훈(2000)의 연구를 참고하여 도구주의, 이성주의, 기능주의의 특성을 가지는 무기적 장식과 낭만주의, 표현주의의 특성을 가지는 유기적 장식으로 나누었으며, 무기적 장식과 유기적 장식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장식은 복합적 장식으로 분석하였다.

디자인 분석 기준에 의해 분석된 의상과 가방 디자인은 디자인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내용분석에 의한 빈도분석과 대응분석을 통한 통계처리방법을 사용하였다. 디자인 특성의 비교분석에서 형태의 경우 의상과 가방이 서로 다른 아이টে임을 감안하여 색채, 재질, 무늬, 장식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의상과 가방 디자인 요소간의 구체적인 코디네이션 양상을 독립성 검정과 대응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코디네이션의 유형은 이경희 외(2006)의 연구를 참

고하여 의상과 가방이 특별히 시각적으로 부각되어지는 특징 없이 디자인 요소간 유사한 특성을 중심으로 매치되는 것을 유사 코디네이션이라 하였고, 의상 스타일에 가방을 매치시킴으로서 새로운 이미지로 변화하거나 기존의 이미지를 더욱 더 풍부하게 부각시키는 것을 플러스 원 코디네이션이라 하였다. 또한 의상과 가방을 서로 상반되는 디자인을 매치시킴으로서 의외성을 강조한 것을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이라 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브랜드별 의상과 가방의 디자인 관련성

브랜드별 의상과 가방의 디자인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표 1>에 나타내었다.

샤넬은 다른 브랜드와 비교하여 의상과 가방에서 모두 무채색과 기하학 무늬에서 부각되어 색채와 무늬 특성이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의상은 딱딱한 재질에서 부각된 특징을 보였고 가방은 부드러운 재질, 무기적 장식에서 부각된 특징을 보여 재질과 장식 특성은 서로 다른 특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샤넬 의상과 가방의 디자인 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무채색 컬러로 세련되면서도 모던한 특성을 부각시켰으며, 비교적 트렌드에 민감하기보다는 의상에서는 트위드 소재, 울폴링 장식, 바인딩 장식 등을 통해 가방에서는 트위드 소재, 기하학 무늬 퀼팅, 체인 및 트리밍의 활용 등을 통해 브랜드의 특징적인 디자인 코드를 매 시즌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었다. 또한 기하학 무늬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었지만 의상은 직조에 의한 색사와 조직의 변화를 통한 무늬, 가방은 퀼팅 기법에 의한 무늬 표현에서 차이를 보였다.

루이비통은 상대적으로 의상과 가방에서 모두 선명한 톤이 부각되어 색채 특성이 유사하게 전개된 것으로 보인 반면, 의상은 광택 재질, 복합 재질, 무지, 유기적 장식에서 부각되었고 가방은 무지, 상징 무늬, 복합 무늬, 복합 장식에서 부각되어 재질과 무늬, 장식 특성은 서로 다른 특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루이비통 의상과 가방의 디자인 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대조적인 컬러 배색과 선명한 톤의 색채에서 부각되어 활기찬 색채 특성을 보였다.

구찌는 다른 브랜드와 비교하여 의상과 가방에서 모두 무지, 무기적 장식이 부각되어 무늬, 장식이 서로 유사한 특성을 보인 반면, 의상은 복합 재질, 어두운 톤의 유채색, 가방은 딱딱한 재질, 무채색에서 부각되어 재질과 색채간의 특성은 다른 특성이 부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구찌 의상과 가방의 디자인 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무늬가 없는 디자인과 딱딱한 느낌의 무기적 장식에서 부각되는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크리스찬 디올은 의상과 가방 모두 대조 배색, 복합 재질, 복합 무늬에서 부각되어 색채와 재질, 무늬 특성이 서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의상은 유기적 장식과 복합 장식, 가방은 무기적 장식에서 부각된 특징을 보여 장식 특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크리스찬 디올 의상과 가방의 디자인 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색상에 의한 대조가 두드러져 화려하고 현란한 색채를 공통적으로 부각시켰으며, 의상과 가방 모두 복합적 양상의 과격적이고 과감한 스타일의 자유로운 디자인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의상과 가방 디자인 모두 모든 디자인 요소에서 트렌드에 민감하게 변화하였다.

프라다는 다른 브랜드와 비교하여 의상과 가방에서 모두 무장식과 무늬를 부각시켜 장식과 무늬 특성이 유사한 전개를 보였다. 반면, 의상은 유사 배색, 무채색, 딱딱한 재질, 부드러운 재질에서 부각되었고, 가방은 어두운 톤의 유채색, 광택 재질에서 부각되어 색채와 재질이 다른 전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프라다 의상과 가방의 디자인 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모두 무늬와 장식이 없는 디자인의 빈도가 높아 비교적 심플한 디자인 특성이 공통적으로 부각되었다.

펜디는 의상과 가방에서 모두 부드러운 재질, 무지, 무장식에서 부각된 특징을 보여 재질과 무늬, 장식 특성이 유사한 경향을 보인 반면, 의상은 유사 배색과 무채색, 가방은 어두운 톤, 은은한 톤의 유채색에서 두각을 보여 색채와 장식 특성은 서로 다른 특성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펜디 의상과 가방의 디자인 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모피, 패딩, 얇고 부드러운 실크 소재의 의상과 모피, 부드럽게 늘어지는 가죽 소재의 가방 등으로 부드러운 소재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었으며, 무늬가 없는 디자인과 무기적 장식 특성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상과 가방 모두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여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에트로는 상대적으로 의상과 가방에서 모두 대조

배색, 딱딱한 재질, 자연-양식표현 무늬가 부각되어 색채와 재질, 무늬에서 유사한 디자인 전개를 보였고 의상은 무장식, 가방은 유기적 장식에서 부각되어 장식 간의 디자인 특성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에트로 의상과 가방의 디자인 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의상과 가방이 모두 공통적으로 대조 배색, 딱딱한 재질, 자연-양식표현 무늬에서 부각된 특징을 보여 색채, 재질, 무늬의 디자인 요소에서 유사한 전개를 보였는데 특히 공통적으로 무늬 특성이 색채 특성과 맞물려 시각적으로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의상이 단품위주의 아이템 전개로 실용적인 크로스 코디를 지향하는 것과 가방이 수납을 고려하여 빅 사이즈로 전개되는 것에서 공통적으로 실용성을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토털 브랜드에서 의상과 가방의 디자인을 기획할 때 특정한 디자인 요소를 통해 디자인 관련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한 가지에서 세 가지의 디자인 요소를 통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상과 가방의 관련성을 고려한 디자인 기획 방향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한 가지의 디자인 요소를 통해 유사한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루이비통과 같이 색채를 통해 활기찬 디자인 특성을 의상과 가방에서 공통적으로 부각시켜 표현 할 수 있다. 둘째, 두 가지의 디자인 요소를 통해 유사한 특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샤넬과 같이 무채색과 기하학 무늬를 통해 공통적으로 모던하고 세련된 감각을 표현할 수 있으며, 구찌와 같이 무지와 무기적 장식 특성을 공통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프라다와 같이 공통적으로 무늬와 장식이 없는 디자인으로 심플함을 부각시킬 수 있다.

셋째, 세 가지의 디자인 요소를 통해 유사한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크리스찬 디올과 같이 의상과 가방 모두 화려한 색채 배색, 복합 재질과 복합 무늬를 중심으로 현란하고 자유로운 디자인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고, 에트로와 같이 자연물을 양식적으로 표현한 무늬를 대조적 색채 배색으로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딱딱한 재질에서 유사한 전개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펜디와 같이 부드러운 재질, 무지, 무기적 장식을 공통적으로 부각시켜 표현 할 수 있다.

## 2. 연도별 의상과 가방의 디자인 관련성

연도별 의상과 가방의 디자인 관련성을 디자인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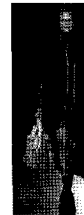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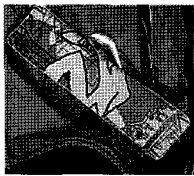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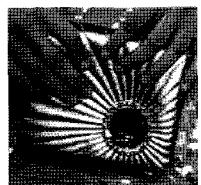
성을 비교분석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표 1>에 나타내었다.

2001년은 의상과 가방에서 모두 복합 무늬와 무장식에서 다른 연도와 비교해 특징을 보여 무늬와 장식에서 유사한 특성을 부각시켰다. 반면 의상은 유사, 대조 배색, 딱딱한 재질에서 두각을 보였고 가방은 복합적 재질에서 부각되어 색채와 재질 특성은 다른 특성이 부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2001년 의상과 가방의 디자인 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모두 복합 무늬와 무장식에서 부각되어 무늬와 장식 트렌드를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무늬의 경우 샤넬은 공통적으로 브랜드 로고를 중심으로 한 복합 무늬를 표현하였으며, 크리스찬 디올은 상징 무늬와

기하학 무늬, 추상 무늬 중심의 복합 무늬 등 다양한 양상으로 의상과 가방이 공통적으로 복합 무늬를 표현되었다. 에트로는 의상과 가방에서 모두 기하학 무늬를 중심으로 복합적인 양상이 두드러졌다.

2002년은 의상과 가방은 모두 자연-양식표현 무늬에서 부각되어 무늬 특성을 유사하게 전개시켰다. 반면 의상에서는 무채색, 복합 재질, 비치는 재질에서 부각되었고, 가방은 유사 배색과 유채색, 딱딱한 재질, 유기적 장식에서 부각되어 색채, 재질, 장식 특성은 다른 디자인 특성을 부각시켰다. 이에 2002년 의상과 가방의 디자인 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의상과 가방이 모두 자연-양식표현 무늬에서 부각된 특징을 보여 무늬 트렌드가 서로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된 것으

<표 1> 의상과 가방의 디자인 관련성의 대표사진

	샤넬	루이비통	구찌	크리스찬디올	프라다	펜디	에트로
의상							
가방							
	2001	2002	2003	2004	2005		
의상							
가방							

로 분석되었다. 크리스찬 디올은 의상에서 염색 및 장식 기법 등을 통해 식물 모티브를 부각시켰으며, 가방은 정교한 장식 기법에 의한 꽃 무늬를 표현하였다. 에트로는 의상에서 자수, 염색, 컷워크 기법 등에 의한 꽃 무늬를 표현하였으며, 가방에서는 퀴팅, 직조 기법 등을 이용하여 동, 식물을 표현하였다.

2003년은 의상과 가방에서 모두 다른 연도와 비교하여 무기적 장식에서 부각되어 장식 특성이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반면 의상은 악센트 배색, 무지에서 부각되었고, 가방은 무채색, 딱딱한 재질, 부드러운 재질, 광택 재질, 자연-사실표현 무늬에서 부각되어 색채, 재질, 무늬는 서로 다른 디자인 특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03년 의상과 가방의 디자인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살펴보면, 의상과 가방에서 모두 무기적 장식이 부각되어 장식 트렌드가 서로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루이비통은 의상에서 파이핑 및 슬릿 장식을 부각하여 표현하였다면 가방은 파이핑 및 바인딩, 지퍼, 주머니, 쟁, 금속 가장자리 장식 등을 부각하였다. 또한 펜디는 의상에서 지퍼, 파이핑, 모피 장식 등을 부각시켰다면 가방에서는 금속 트리밍, 턱 장식 등을 부각시켰다.

2004년은 의상과 가방에서 모두 유사 배색과 대조 배색, 기하학 무늬, 복합 장식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 색채와 무늬, 장식의 특성이 유사한 경향으로 부각되었다. 반면 의상은 복합 재질에서 부각되었고 가방은 딱딱한 재질, 부드러운 재질에서 부각되어 재질의 디자인 전개가 다른 양상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2004년 의상과 가방 디자인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면, 모두 대조와 유사 배색, 기하학 무늬, 복합 장식에서 부각된 특징을 보여 색채, 무늬, 장식 트렌드가 서로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2005년은 의상과 가방 모두 유사 배색, 부드러운 재질, 기하학 무늬에서 다른 연도와 비교하여 부각되어 색채와 재질, 무늬 특성이 유사하게 전개되었다. 반면 의상은 특별히 부각된 장식 특성이 없었지만 가방은 무기적 장식과 복합 장식에서 부각되어 장식 특성이 서로 다른 경향을 부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05년 의상과 가방의 디자인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면, 의상과 가방이 모두 유사 배색, 부드러운 재질, 기하학 무늬에서 부각된 특징을 보여 색채, 재질, 무늬 트렌드가 서로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샤넬은 의상에서 부드러운 쉬폰, 벨벳 소재 등을 표현하였고, 가방에서는 모피와 퀴팅 장식

등을 표현하였다. 펜디는 의상에서 실크와 니트 소재, 폭신한 벨벳 및 모피 소재 등을 선보였으며, 가방은 모피, 부드러운 가죽과 페브리, 표면의 부피감을 살려 보송한 느낌을 주는 소재 등을 선보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연도별 의상과 가방 디자인은 서로 다른 디자인 요소에서 유사한 특성을 부각시키며 트렌드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늬는 의상과 가방 모두 2001년 복합 무늬, 2002년 자연-양식표현 무늬, 2004년 이후는 기하학 무늬 트렌드가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식은 2001년 무장식, 2003년 무기적 장식, 2004년 복합 장식 트렌드가 함께 부각되어 나타났다. 색채는 2004년 이후 대조 배색과 유사 배색이 함께 부각되어 표현되었으며, 재질은 2005년 의상과 가방에서 모두 부드러운 재질이 부각되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연도별 의상과 가방의 무늬와 장식간의 디자인 특성을 유사한 양상으로 부각시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으므로 의상과 가방 디자인 기획 시 연도별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무늬와 장식 특성을 유사한 경향으로 표현하는 것이 의상과 가방 디자인에 통일감을 주면서 트렌드를 표현하는 효과적인 전개방법이라 사료된다.

### 3. 브랜드별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

브랜드별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 양상을 디자인 요소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표 2>에 나타내었다.

샤넬의 의상과 가방 코디네이션 양상을 살펴보면 색채와 장식 특성을 중심으로 의상과 가방이 서로 유사한 유사 코디네이션 경향을 보였지만 딱딱하고 직선적인 라인의 의상에 얇고, 작은 사이즈, 둥근 형태, 짧은 길이의 가방이 연출됨으로서 가볍고도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더하였다. 따라서 샤넬은 형태에 의한 플러스 원 코디네이션 양상이 부각되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루이비통 의상과 가방 코디네이션 양상을 살펴보면 의상 실루엣과 짧은 헴들길이가 매치되는 경향이 높았는데 이는 루이비통 가방 디자인이 짧은 헴들 길이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재질간의 매치에서도 의상과 가방이 이질적인 재질의 매치로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각적으로도 색채를 중심으로 의상과 가방 디자인

<표 2>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의 대표사진

샤넬	루이비통	구찌	크리스찬디올	프라다	켄디	에트로
2001	2002	2003	2004	2005		
S/S			F/W			

이 제각각 부각되는 특징을 보였으므로 루이비통 의상과 가방 코디네이션 양상은 재질과 색채에 의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 양상이 부각됨을 알 수 있다.

구찌 의상과 가방 코디네이션 양상을 살펴보면 블랙과 어두운 톤의 빈도가 높은 관계로 다른 디자인 특성이 시각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아 비교적 유사 코디네이션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형태간의 매치는 비교적 시각적으로 두드러졌는데 넓은 실루엣 일수록 큰 사이즈 가방과 매치되었고 몸에 피트 되는 실루엣 일수록 작은 사이즈 가방과 매치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좁은 사각형은 짧은 핸들길이, 사각형과 모래시계형의 실루엣은 중간 핸들길이와 매치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크리스찬 디올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 양상을 살펴보면 형태와 재질, 무늬, 장식간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 화려하고 현란한 디자인을 정제된 코디네이션을 통해 조화롭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레이어드 연출과 과감한 형태 특성을 가진 의상과 파격적인 형태의 가방을 매치하였고, 유사한 무늬끼리 매치되는 경향이 높았다. 하지만 재질과 장식 특성은 이질적인 특성과 매치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시각적으로 색채간의 매치가 다른 브랜드와 비교하여 이질적인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재질과 장식, 색채에 의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이 부각됨을 알 수 있다.

프라다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 양상을 살펴보면 의상과 가방의 색채 경향이 덜 톤을 중심으로 분포되



어 있으므로 의상과 가방이 무난하게 매치되는 경향이 높았고, 무늬와 장식도 특성이 유사한 요소를 중심으로 매치되었다.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어두운 색채 특성으로 인해 다른 디자인 요소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펜디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 양상을 살펴보면 가방 디자인 특성이 독특한 단면 형태와 큰 사이즈, 부드러운 재질 등에서 특징을 보여 이들과 의상과의 매치가 특히 부각되어 나타났다. 또한 형태와 색채를 통해 플러스 원 코디네이션 및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에트로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 양상을 살펴보면 의상과 가방이 서로 다른 무늬와 색채간의 자유로운 매치를 통해 특징을 부각시켰는데 이로서 에트로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은 무늬와 색채에 의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 유형이 상대적으로 부각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식에서 의상과 가방이 유사한 특성을 중심으로 관련을 보였지만 가방의 독특한 장식 특성이 선명한 색채와 맞물려 시각적으로 매우 두드러지는 경향이 높았다. 따라서 가방의 연출을 통해 플러스 원 코디네이션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었다. 전반적으로 에트로로는 의상과 가방 디자인 특성이 모두 강하게 나타나지만 비교적 가방 디자인이 의상보다 더욱 부각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브랜드별 코디네이션 경향은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었다. 샤넬은 의상과 가방이 전반적으로 유사 코디네이션 경향을 보이지만 가방의 형태적 특성이 부각되어 플러스 원 코디네이션 특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었다. 루이비통은 재질과 색채에 의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을 통해 전반적인 연출에서 의상과 가방 디자인이 모두 부각되는 특징을 보였다. 구찌와 프라다는 전반적으로 유사 코디네이션을 부각시켰다. 크리스찬 디올은 색채와 재질, 장식을 통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을 통해 복합적이고 파격적인 코디네이션 감각을 부각시켰다. 펜디는 가방의 형태와 색채를 통해 플러스 원 혹은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 경향을 부각시켰다. 에트로 는 무늬와 색채에 의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 경향이 높았으며 다른 브랜드와 비교하여 플러스 원 코디네이션이 부각되었다. 이로서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 경향은 의상과 가방이 서로 유사한 특성끼리 매치됨으로서 유사 코디네이션을 표현할 수도 있으며, 가방의 디자인 특성이 부각됨으로서 기존 의상 이미지에 새로운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의상과 가방의 이

질적인 매치를 통해 의외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상과 가방을 유사 코디네이션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의상과 가방의 거의 모든 디자인 요소간의 매치를 같은 유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며, 가방의 연출을 통해 기존의 의상 이미지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다면 가방의 독특한 형태와 색채 특성 등을 부각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을 통해 기존의 상식과 틀에서 벗어난 색다른 연출을 하고자 한다면 색채와 재질, 무늬, 장식 등에 의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으로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 4. 연도별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

연도별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 양상을 디자인 요소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표 2>에 나타내었다.

2001년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 경향을 살펴보면 색채에서 의상과 가방이 유사한 특성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는 유사 코디네이션과 플러스 원 코디네이션이 함께 나타났다. 또한 재질과 무늬간은 유사 코디네이션 경향을 보였다.

2002년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 경향을 살펴보면 의상이 사각형과 넓은 사각형의 실루엣에서 다른 년도와 비교하여 높은 빈도를 보여 이들이 짧은 길이와 중간 핸들길이와 매치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상반되는 재질 특성끼리 매치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재질에 의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이 부각되어 표현되었다.

2003년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 경향을 살펴보면 같은 무늬를 중심으로 매치되는 경향이 높아 무늬에 의한 유사 코디네이션을 보였다. 또한 이질적인 재질간의 매치가 두드러져 재질에 의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이 부각되었다.

2004년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 경향을 살펴보면 색채와 재질간 비교적 유사코디네이션 경향을 보였으며, 무늬간은 특성이 다른 무늬와 매치되는 경향이 높아 무늬에 의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2005년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 상호관련성을 살펴보면 무늬 특성에서 유사한 모티브간의 관련이 높게 나타나 무늬를 중심으로 유사 코디네이션 특성을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연도별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 경향은 디자인 요소별 매우 높은 관련성을 가지며 매년 다른 양상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은 전반적으로 유사 코디네이션 경향을 보이지만 특징적으로 색채에 의한 플러스 원 코디네이션이 부각되었다. 2002년은 재질에 의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이 부각되어 나타났으며, 2003년은 무늬를 중심으로 유사 코디네이션 경향을 보이지만 재질에 의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도 부각되어 나타났다. 2004년은 전반적으로 유사 코디네이션 경향을 보이지만 무늬에 의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이 부각되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5년은 무늬 특성을 중심으로 유사 코디네이션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이 코디네이션 양상도 연도별 매우 뚜렷한 변화 추이를 보였는데 이는 연도별 의상과 가방의 디자인 특성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시즌별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

시즌별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표 2>에 나타내었다.

S/S는 F/W의 코디네이션 경향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S/S 의상과 가방 디자인 특성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S/S 코디네이션은 전반적으로 무늬와 장식간의 매치를 통해 유사 코디네이션 경향을 보였으나 형태와 색채간의 매치에서는 S/S 가방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독특한 형태 디자인과 다채롭고 생기 있는 색채 특성을 부각시킨 것의 영향으로 형태와 색채에 의한 플러스 원 코디네이션과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나타났다.

반면 F/W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 양상을 살펴보면 F/W 가방 디자인 특성이 무난한 형태와 차분한 색채를 중심으로 부각되었으며, 재질과 무늬, 장식간의 매치도 같은 유형이거나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며 매치되는 경향이 높았으므로 F/W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은 전반적으로 유사 코디네이션의 특징을 보였다.

이에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은 S/S에서 가방의 형태와 색채 특성 등을 부각시켜 매치시킴으로서 비교적 가방 디자인에 시각적인 중심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며, F/W에서는 의상과 가방의 매치가 유사한 특성을 중심으로 무난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계절감을 표현한 코디네이션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 V. 결 론

이 연구는 의상과 가방의 디자인 관련성과 코디네이션 양상을 살펴봄으로서 토털 지향 국내 브랜드의 디자인 및 VMD 기획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토털로 전개되는 해외 유명 브랜드 7개의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을 중심으로 의상과 가방 사진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사진 중 디자인이 불명확하거나 반복되는 사진을 제외하고 디자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의상 1055개와 가방 773개를 선정하였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코디네이션을 중심으로 쌍을 이루는 의상과 가방의 사진자료 1008쌍을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은 내용분석과 통계처리 방법을 시행하였다. 의상과 가방의 디자인 관련성과 코디네이션 양상을 살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상과 가방의 디자인 관련성에 대해 브랜드 별로 디자인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살펴본 결과 샤넬은 색채와 무늬, 루이비통은 색채, 프라다와 구찌는 무늬와 장식, 크리스찬 디올과 에트로는 색채와 재질, 무늬, 펜디는 재질과 무늬, 장식 특성에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의상과 가방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한 디자인 기획 시 특정한 디자인 요소를 통해 유사한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색채 특성과 같은 한 가지의 디자인 요소를 중점적으로 유사하게 다룸으로서 관련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색채와 무늬, 무늬와 장식 등과 같은 두 가지의 디자인 요소를 통해 유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색채와 재질, 무늬, 재질과 무늬, 장식 등과 같이 세 가지의 디자인 요소를 관련시켜 유사한 양상으로 디자인을 전개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의상과 가방의 연도별 디자인 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2001년은 복합 무늬와 무장식, 2002년은 자연-양식표현 무늬, 2003년은 무기적 장식, 2004년은 대조 배색과 유사 배색, 기하학 무늬, 복합 장식, 2005년은 유사 배색, 부드러운 재질, 기하학 무늬를 중심으로 유사하게 표현하여 관련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도별 의상과 가방의 무늬와 장식간의 디자인 특성을 유사한 양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의상과 가방 디자인 기획 시 연도별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무늬와 장식을 유사한 양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의상과 가방 디자인에 통일감을 주면서 트렌드를 표현하

는 효과적인 전개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 양상을 브랜드별로 살펴본 결과 샤넬은 가방의 형태에 의한 플러스 원 코디네이션, 루이비통은 재질과 색채에 의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 구찌와 프라다는 유사한 특성끼리의 유사 코디네이션, 크리스찬 디올은 색채와 재질, 장식을 통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 펜디는 형태와 색채에 의한 플러스 원 혹은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 에트로는 무늬와 색채에 의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 경향이 높았으며 다른 브랜드와 비교하여 플러스 원 코디네이션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의상과 가방을 유사 코디네이션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디자인 요소간의 매치를 유사한 양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가방의 연출을 통해 기존의 의상 이미지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다면 가방의 독특한 형태와 색채 특성 등을 부각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을 통해 기존의 상식과 틀에서 벗어난 색다른 연출을 하고자 한다면 재질과 장식, 무늬, 색채 등에 의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을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 양상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2001년 색채에 의한 플러스 원 코디네이션, 2002년 재질에 의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 2003년 무늬를 중심으로 유사 코디네이션 및 재질에 의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이 부각되었다. 2004년 무늬에 의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 2005년 무늬를 중심으로 유사 코디네이션 양상을 보이며 뚜렷한 코디네이션 특징의 변화를 가졌다. 이는 연도별 의상과 가방 디자인 특성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의상과 가방 디자인 기획 시 그 시대의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시즌별 의상과 가방의 코디네이션 양상을 살펴본 결과 S/S는 가방의 특성이 독특한 형태와 다채롭고 생기 있는 색채에서 부각되어 무난한 형태와 차분한 색채 특성을 보이는 F/W 시즌보다 시각적으로 가방이 부각되어져 나타났다. 따라서 S/S에서는 가방의 형태와 색채 특성 등을 부각시켜 의상과의 연출에서 비교적 가방 디자인에 시각적인 중심을 주는 플러스 원 코디네이션이나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F/W에서는 의상과 가방을 디자인 요소간 유사한 특성을 중심으로 매치시켜 유사 코디네이션 양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유명 브랜드 의상과 가방 디자인은 서로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코디네이션 양상에서도 브랜드별 특성과 연도별, 시즌별 트렌드를 모두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면밀한 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공미선, 채금석. (2003). Christian Dior 오뜨꾸뛰르의 디자인 오리지널리티. *복식*, 53(2), 57-70.
- 곽태기. (2001). 혁명적 변화에 나타난 NEW FASHION의 발생 및 특징에 관한 연구-CHRISTIAN DIOR의 THE LOOK을 중심으로-. *복식*, 51(1), 129-143.
- 김정은, 정홍숙. (2000). 제2차 대전 후 조형예술과 Christian Dior의 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0(2), 59-80.
- 박선훈. (2000). *복식에 있어서 장식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성숙. (2003). *패션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패션 잡지화 보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인순. (2003). *20세기 토털 코디네이션의 변천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연순. (2004). *내셔널 가방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위한 로고와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혜진. (2004). *가방을 적용한 상의의류 디자인 연구-18세에서 24세 여대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유미. (2002). *샤넬(Gabrielle Chanel, 1883~1971)의 작품 속에 나타난 페미니즘적 성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손, 김희섭. (1998). *의생활과 패션 코디네이션*. 파주: 교문사.
- 이경희, 김희정, 김유진, 김윤경, 노경혜, 오해순, 은소영, 주소현. (2001). *패션 디자인 발달*. 파주: 교문사.
- 이미숙. (1999). 샤넬 슈트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48, 197-216.
- 이승림, 송명걸. (2000). 샤넬 이미지를 통한 패션 코디네이션 연구. *복식*, 50(8), 129-147.
- 이승희, 신초영. (2002). 여대생들의 패션 복제품 구매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물질주의와 쇼핑가치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11), 1537-1546.
- 이연심. (2002). *명품 복제품 구매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주소현, 이경희. (200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주황색 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26(7), 970-981.

- 진경옥. (2005). 존 갈리아노 패션쇼에 나타난 현대 패션 코디네이션 특성. *복식*, 55(6), 51-66.
- 최진형. (2006). *여성 패션 디자이너의 디자인 특성 연구: 비오네, 샤넬, 스키아파렐리의 1930년대 디자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은주. (2002). *1990년대 스포츠 패션에 관한 연구: 프라다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허갑섭, 이병화. (1999). 패션 연출방법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 의류학회*, 23(1), 54-65.
- 허은선, 박금주. (2001). 대학생의 패션 코디네이션 사례 연구 -1996년 S/S 시즌 서울을 중심으로-. *디자인학 연구집*, 7(2), 359-378.
- Davis, M. L. (1990). *복식의 시각 디자인*. 이화연 옮김 (1990). 서울: 경춘사.